

조선·해운 구조조정 시중은행 불뚝될까 긴장

한진해운에 대한 위험노출, 하나은행 860억·농협 760억 구조조정 본격화 될때 손실 더욱 커질것 리스크 관리 돌입

조선·해운사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도 익스포져(위험노출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선·해운사의 부실채권은 대개 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 은행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도 일부 몰려 있어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앞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손실이 더욱 커질 수도 있는 만큼 일제히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은행들의 실적이 좋았지만 2분기 실적은 조선·해운 업계의 구조조정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NH농협은행은 조선사업 실적 악화의 영향으로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졌다.

은행들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여신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가능 ▲추정손실 등의 5단계로 분류한다. 추정손실로 갈수록 회수가능성이 낮아진다.

통상적으로 은행들은 한진해운처럼 자율협약에 불입한 기업을 요주의로 분류한다.

전체 여신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은 고정하여여신으로 분류하는데, 고정되어 여신이 늘어나면 회수 불가능한 여신에 대비해 은행이 쌓아두야 할 충당금도 함께 증가한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

로 농협은행의 고정하여여신 금액과 비율은 각각 4조2000억원 2.27%를 기록했다.

이는 시중은행의 평균 고정하여여신비율인 1.13%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금감원은 신한·우리·SC·KEB하나·씨티·KB국민 은행을 시중은행으로, 농협은행은 특수은행으로 분류하고 있다.

농협은행의 부실채권 부담이 커진 것은 STX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등의 부실기업에 대출을 내준 탓이다. 농협은행이 STX조선해양의 부실채권에 대비해 4600억원 상당의 충당금을 적립한 영향으로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해 620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자율협약을 신청한 한진해운도 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금융권은 한진해운에 대한 농협은행의 익스포져(위험노출도)를 76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뒤이어 하나은행(860억원), 우리은행(890억원), 국민은행(550억원)도 한진해운에 대한 익스포져를 안고 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현재 해당 여신을 정상으로 분류, 오는 2분기에 충당금을 적립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1분기에서 35%인 190억원을 미리 적립했다.

금융권은 현대상선의 경우 은행들이 이미 100% 가까이 충당금을 적립했고, 한진해운은 산과 수운의 익스포져 비중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시중은행에 미칠 여

파는 크기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업황이 어려워지고 구조조정 문제가 이어짐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대기업의 대출 비중을 줄이면서 부실채권 관리에 돌입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신한은행은 원화대출금액을 전분기 대비 2조원(0.9%)가량 늘렸지만 대기업대출은 1230억원(0.6%) 줄었다. 소호(SOHO)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은 동기간 1.3% 증가했다.

하나은행의 대기업대출도 전분기 대비 6.2% 감소한 18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대출은 63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5% 늘었다.

우리은행도 선제적인 여신 관리에 나서면서 대기업대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1%포인트가량 줄였다.

국민은행의 대기업대출만 전분기(16조9000억원)·지난해 동기(16조9000억원)와 비교해 소폭 상승한 17조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체 여신에서 대기업대출의 비중은 8.1%로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가량 감소했다. A시중은행 관계자는 "대기업 업황이 어려운 가운데 구조조정 이슈까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시중은행 입장에서 대기업대출이 예전처럼 매력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쉽게 즐기세요

LG전자는 27일 '이지(easy) TV' 5종을 출시했다. 이 TV는 리모컨 크기를 늘리고 버튼 숫자를 줄였고 더욱 또렷하게 볼 수 있는 메뉴, 고음역대를 강화한 음향 등 누구나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다.

한국GM, 말리부 9세대 풀체인지 모델 출시

'올 뉴 말리부' 2310~3180만원

한국GM 쉐보레가 말리부 9세대 풀체인지(완전변경) 모델을 출시했다.

제임스 김 한국GM 사장은 27일 서울 고척 스키아돔에서 쉐보레 중형 세단 말리부 신차 출시발표회에서 "말리부의 압도적인 제품력과 공격적인 가격정책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형 말리부는 동급 최대를 자랑하는 4925mm의 차체 길이에 스포츠 쿠페 스타일을 결합했다. 특히 LED 주간주행등과 길게 뻗은 LED 후방보조제동등은 스포츠 쿠페를 연상시키는 날렵한 C필러와 만나 감각적인 느낌을 살렸다. 광범위하게 적용된 가죽 트림, 우드 데



코와 부드러운 촉감의 마감 소재는 실내 곳곳에 배치된 은은한 아이스블루 실내 무드 조명과 함께 품격 있는 인테리어를 완성한다.

스튜어트 노리스(Stuart Norris) 한국자엠 디자인센터 전무는 "낮고 날렵한 차체와 과감하고 독특한 라인 및 첨단 기술이 접목된 말리부의 디자인이 한국 고객을

의 눈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 말리부는 1.5 l와 2.0 l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을 채택했다.

1.5 l 엔진은 166마력, 25.5kg.m의 동력을 갖는다. 또 기본 탑재된 스태 앤 스타트 기능과 다운사이징 경량화를 통해 복합연비 13.0km/l 를 달성했다.

2.0 l 직분사 터보 엔진은 253마력의 동급 최대 출력으로 강력한 퍼포먼스를 선사한다.

아울러 신형 말리부는 전 트림에 동급 최대의 8개 에어백을 기본 적용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했다. 총 17개에 달하는 초음파 센서와 장·단거리 레이더 및 전후방 카메라는 차량 주변을 상시 감시한다.

▲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 저속 및

고속 긴급제동 시스템 ▲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 시스템은 지능형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FSR ACC)과 연동해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을 경고하고, 긴박한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개입해 사고를 예방한다.

또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최대 4개의 USB포트(2.1A) ▲통풍시트 ▲열선 스티어링휠 ▲9개의 고성능 스피커와 대용량 앰프로 구성된 보스(BOSE) 프리미엄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EPPB) ▲스마트키 및 버튼 시동을 기본 사양으로 채택했다.

신형 말리부의 가격은 1.5 l 터보 모델이 2310만~2901만원, 2.0 l 터보모델은 2977만~3180만원이다.

인진수 기자

한은 "마이너스 금리 실물경제 효과 제한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디플레이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연구부 김보성·박기덕·주현도 과장은 27일 발표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운영 현황' BOK이슈노트 보고서에서 "마이너스 정책금리의 도입·운영이 통상적인 금리경로를 통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효과는 아직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마이너스 금리는 제로금리를 하한선으로 여기던 기존의 개념과 달리 양적완화와 함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 분류된다. 경기침체를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디플레이션 위험에서 탈출하거나, 통화기치를 낮추기 위해 잇달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현재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국가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해 말 기준 수신금리를 -0.40%로 정하고 있고, 일본(-0.10%), 덴마크(-0.65%) 등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스웨덴과 스위스는 각각 -1.25%와 -0.75%의 수신금리를 운영하면서 기준금리도 마이너스로 낮춘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에도 경제성장률 둔화세가 이어지는 등 실물경제에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로지역 경제는 지난 2013년 2분기 이후 0%대의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덴마크와 스위스 등 소규모 개방경제국들은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0% 수준에서 회복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는 구조적인 저성장·재물가 추세와 함께 마이너스 금리가 은행 예대금리 하향세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이 지목됐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부과에 따른 은행 비용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은행들이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자체 부담하면서 금리를 충분히 내리지 않아 금리경로의 작동이 제약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외환시장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따른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시장에서 유로존, 스웨덴, 일본 등의 단기 시장금리는 지난해 기준 모두 마이너스 수준에서 형성됐고, 국제 등 장기채권 금리하향에 영향을 미치면서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국제채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외환시장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유럽 지역 국가들은 소기의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 유로화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했고, 덴마크와 스위스, 스웨덴의 환율도 안정세를 유지했다. 반면 엔화는 국제 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오히려 통화기치가 상승했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가 의도한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인진수 기자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명령휴가제 추가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명령휴가제, 내부고발자제도의 세부 운영 방안 등이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시 준수 사항 내부통제기준에 추가 포함할 사항,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임직원에게 불시에 휴가를 명령하고 이 기간 다른 임직원이 검사를 실시해 비위행위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명령휴가제를 비롯해 내부고발자제도의 세부 운영, 사고 대비 직무분리 등이 내부통제기준에 추가된다.

위험관리기준에는 우발상황에 대한 비상계획 등을 포함하고 위험관리책임자 지원조직 마련·유지 등을 규정했다.

인진수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